



즉시 배포용: 2023년 5월 29일

KATHY HOCHUL 주지사

**ICYMI: 버팔로 뉴스 사설: 총기법과 좀 더 합리적인 문화, 피로 얼룩진 텍사스보다
뉴욕주를 더 안전하게 보호**

오늘 버팔로 뉴스는 총기 폭력과 Hochul 주지사가 어떻게 뉴욕 총기법을 강화했는가에 관한 사설을 실었습니다. 사설 텍스트는 아래에서 볼 수 있으며 온라인 버전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선택이 우리를 규정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또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선택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최근 뉴스 기사는 뉴욕주 주민들은 텍사스라고 불리는 무장 캠프가 아닌 이곳에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할 이유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두 주 모두 작년에 끔찍한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버팔로에서는 흑인 주민 10 명이 인종차별 청소년에게 살해됐고, 텍사스 우발드에서는 불과 며칠 뒤 또 다른 십 대가 초등생 19명과 교사 2명을 학살했습니다. 두 살인범은 미국 대량 살인범들이 선호하는 무기인 AR-15 식 소총을 사용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이에 대해 신속히 대응했습니다. Kathy Hochul 주지사와 주 의원들은 주 총기법의 약점을 간파하고 이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는 저격범을 상대로 시행됐다면 끔찍한 비극을 피할 수도 있었던 뉴욕의 레드 플래그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텍사스에서는 유혈사태와 티커유니 전체의 슬픔은 어쨌든 공식적으로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텍사스 주정부는 인간의 비극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주지사는 총기를 옹호할 뿐만 아니라 주의 다른 지역에서 온 살인자를 사면하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이것은 미합중국 헌법 제정자의 모호한 총기 보호에 관한 수정헌법 제 2 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정헌법 제 1 조보다 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권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불명확하고 해석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들은 절대주의자들의 목소리와 상관없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공공 안전 대 무기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 어린이들의 생명 대 대량 살인자를 위해 설계된 총기 휴대 권리라는 우선 순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뉴욕에서는 사실을

인식하려는 의지가 있는 반면, 텍사스에서는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든 희생자가 얼마나 어리든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라는 명백히 거부할 수 없는 강요가 있습니다.

총기 규제법은 차이를 만듭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극명한 통계처럼 보다 균형 잡힌 문화와 함께 뉴욕의 법은 텍사스주보다 훨씬 안전한 주가 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2021년 동안 가장 최근 연도에 사용 가능한 뉴욕주 총기로 인한 사망률은 100,000 명당 5.4 명이었습니다. 텍사스의 비율은 10만 명당 15.6 명으로 뉴욕의 3 배에 가까웠습니다. 마찬가지로 뉴욕의 살인율이 10만 명당 4.8 명인 반면, 텍사스는 10만 명당 8.2 명으로 거의 두 배였습니다. 이러한 수치를 통해 하나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총을 예찬하게 되면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텍사스의 무모한 주지사가 충분히 분명히 밝힌 바와 같이, 그것은 텍사스의 문화적 문제입니다. 오스틴의 배심원단은 경찰의 만행에 항의하던 무장 남성을 살해한 개인에 대해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정부의 총기 문화에 대한 국가의 헌신과 시위에 대한 적대감을 나타냅니다. **Greg Abbott** 주지사는 그를 사면하길 원합니다. 미국의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는 추가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총기법에 대한 지지는 정치적인 선을 넘어섭니다. 심지어 많은 총기 소유자들도 합법적인 통제 필요성을 인식합니다. 그들에 대한 평면적인 거부감은 주로 극우파의 영역이며, 종종 자국의 정부에 의한 가상의 공격 위험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한다는 낭만적인 미명하에 있습니다.

2021년 1월 6일에 발생한 공격은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헌법에 대한 경멸을 보여준 패배한 대통령을 위해 공정한 선거를 뒤엎기 위해 폭력수단을 동원한 것은 일부 무장한 극우파의 회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총기법의 가치 중 일부는 선량한 미국인들을 그러한 무기에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극단주의자들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지난 5월 14일 제퍼슨 애비뉴 탑스 슈퍼마켓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주의 총기규제법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주의 살인에 대한 법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물론 미국 정부가 행동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입니다. 실효성 있는 주법이 있어도 총기 문화의 혜택을 받는 주에서 무기를 들여오는 건 너무나도 쉽습니다. 다시금, 숫자는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healthdata.org 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은 총기 폭력에 있어 특이치를 상회하는 국가로 최소 1,0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모든 고소득 국가와 영토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연코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총기 살인 발생률 4.12 명은 10만 명당 1.82 명으로 2위인 칠레의 두 배를 넘습니다. 캐나다의 비율은 10만 명당 0.5 명이며 영국의 경우 0.04 명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당혹스러움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미국인들을 죽이고 있는 사실에 직면하여 행동하지 않는 위법행위입니다. 올해 총기 폭력 기록 보관소는 하루에 약 1.7 건인 243 건의 총기 난사 사건과 23 건의 대량 살인, 즉 일주일에 한 건 이상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폭력과 연방 정부의 무관심에 대한 수치스러운 기록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뉴욕이 살만한 곳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줍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